

“문재인 정권은 누구를 위해 노동개약을 시도하나”

3.6 전국 13개 지역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광주형 일자리·대우조선 일방 매각, 개별 독점·한국 제조업 재앙’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 철회와 노동법 개약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기준을 위해 총파업·총력 투쟁을 본격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법 개약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 강행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촛불 항쟁 3년 만에 세상은 다시 재벌공화국이 됐다. 민주노총은 영문도 모르고 희생과 고통을 전가 받을 노동자 민중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라며 3월 말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47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2시간 파업을 벌이고 지역별 총파업 대회에 참가했다. 특히 노조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와 성신씨에스분회 조합원들은 소복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두 분회는 레이테크코리아 불매운동과 노조파괴를 위해 기획 청산을 자행한 코오롱그룹을 규탄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대회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재벌들의 청부를 받아 자한당과 한국노총까지 끌어들여 노동법 개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제도화하려 한다. 이들 노사정 삼각편대는 민주노총을 죽인다는 핑계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까지 무력화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총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고통받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울 때 존재 이유가 있다”라며 “일터와 일손을 멈춰 노동법 개약을 막아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시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대우조선 일방 매각 등 문재인 정부의 산업정책 일방 강행을 규탄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올해 3월 1일은 3.1운동 백 주년이기도 하지만 일제 강점기 원산 총파업 90주년이다”라고 소개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원산 총파업 당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했다. 90년 지난 오늘 노사정 반동의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개약 시도로 노동법이 정한 40시간 노동제는 무시당하고 최저임금법 결정 과정 개약 시도로 최저임금은 인상은 멀어지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는 포용을 말하면서 행동은 모든 산

업정책을 자본 위주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동자와 대화 한번 없이 강행하는 ‘저임금 반값 임금 광주형 일자리’와 ‘대우조선 일방 매각’은 한국 제조업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라며 “금속노조는 너와 나, 내 이웃과 모든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결의했다.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공공의료보험을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영리병원을 내주기 시작하면 결국 돈 많은 내국인은 영리병원을 찾는다. 호텔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부자들은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자고 할 것이다. 노동자와 서민들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은 재정 부족으로 결국 무너진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나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과 이영철 특수고용대책위원회 의장이 연단에 올라 최저임금법 개약과 자회사를 통한 속임수 정규직 전환을 규탄하고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촉구했다.

총파업 대회를 마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조합원들은 민주당과 자한당 당사 앞에 ‘노조파괴 중단, 산업정책 강행 저지, 자유한국당 해체’라는 구호를 썼다.

포스코지회, 출범 여섯 달 만에 지회 사무실 열어

5일 포스코지회 사무실 개소식 ... “지역과 사업장의 노동현장 민주화 제 역할 하겠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출범 여섯 달 만에 지회 사무실을 마련해 개소식을 열었다. 포스코지회는 지회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조직 강화와 확대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 사무실은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다. 포스코 공장과 본사에서 가까운 위치다. 1층에 지회 업무공간과 편의시설, 상담실을 마련했고, 2층에 회의실이 자리 잡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아직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지 않았지만 사측이 지회 사무실을 제공했다.

포스코지회는 사무실 개소식을 지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열었다. 노조 임원, 포항지부 임원들과 각 지회장, 포스코지회 간부들이 개소식에 참석했다. 회사 노무 담당 임원들과 지역 정치인들도 개소식에 참석해 포스코지회 사무실 개소를 축하하고 덕담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대나무는 5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운다. 죽순은 하루아침에 돋아나지 않는다”라며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대나무처럼 시간이 지나 완벽하게 자리 잡고 무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라고 격려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포스코지회 조합원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고당하면 금속노조를 탄압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금속노조의 모든 조합



원이 해결을 위해 모일 것이다”라며 “금속노조는 상대가 누구든 경쟁하며 커갈 자신이 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력과 내용으로 회사를 상대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전락 노조 포항지부장은 “3천 명이 넘는 포스코 조합원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라며 “포항지부는 포스코가 침묵의 50년을 넘어 희망의 50년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포스코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해고자 문제를 언급하며, 회사가 해고자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9월 포스코지회 간부 다섯 명이 노무협력실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12월 세 명을 해고하고, 두 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지역과 사업장의 노동현장 민주화 제 역할 하겠다”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은 “노동조합 사무실이 생기니 감회가 새롭다. 이제

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 지회장은 포스코지회는 정규직과 협력사와 사내하청노동자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조직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대정 지회장은 “포스코지회를 설립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왔다. 꼭 노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궁금한 점을 묻고 노조 활동에 관심을 보인다”라며 “포스코지회가 이런 목소리를 받아들여 건 돕고 함께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가 회사와 무작정 대립하는 노조가 아니라 공생하는 조직이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한대정 지회장은 “원칙을 지키고 올바른 노동조합 운동을 하겠다는 게 우리 지회의 정신이다. 회사와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력해야 할 사안은 협력하겠다”라며 “회사의 제안이 합리적이면 보조를 맞춰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대정 지회장은 “지회가 만들어 지지 얼마 되지 않아 다소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점이 있다. 지역과 사업장의 노동현장 민주화에 제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은 굳건하다”라며 “교육과 끊임없는 일상 활동으로 조합원들의 노동자 의식을 키우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회가 노력하겠다”라고 결의했다.